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 연구
- 퍼스트레이디 기간을 중심으로 -

정 선 주
동강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강사

A Study on Michelle Obama's Hair Styles
- Focused on Her Period of the First Lady -

Jeoung Sunju
Lecturer, Dept. of Cosmetology, Dongkang College

Abstract

Recently the hair style of Michelle Obama, the world's most recognized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loved by the public with her optimistic confidence and as a fashion leader. For Michelle Obama's hair styles by length, a medium-short cut style was expressed in various ways to show her strong will by exposing the forehead, an elegant image by asymmetry hair, or a progressive image by a short volume hair cut. A medium cut style expressed an elegant and intelligent image in shoulder-length and a trendy image using a side parting. A updo hair style produced young, womanly, and casual images using twisting, binding, typing up, and rolling technique according to situations. For hair styles associated with her roles, when participating as a diplomatic delegate, she expressed the President's helpful partner by a soft and womanly image using bobbed hair and half updo technique. For the participation in state occasions, her hair styles were examined in three situations. First of all, she mainly had a neat style, exposing her forehead in official schedules as a political partner to create an intelligent and high-class image. Second, she expressed a strong will with a medium-short style during an election campaign. Finally, she showed an elegant and refined hair style in consideration of T.P.O. during social activity. Michelle Obama overcame her hair's handicap, grasped her images associated with hair length, and expressed hair strategically according to her roles as the first African-American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First Lady(퍼스트레이디), Hair Style(헤어스타일), Michelle Obama(미셸 오바마), Image(이미지), Hair of Black People(흑인 모발)

Corresponding author : Jeoung Sunju, Tel.+82-10-9943-1175
E-mail : kami1170@hanmail.net

I. 서론

미디어 사회가 도래하면서 역할에 맞는 스타일을 통한 이미지의 전략적 구현(具現)은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걸로 보여지는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 중 헤어스타일은 특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외모의 단점을 위장하거나 숨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상을 제외한 외모에서 전체 이미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의 외모에서 보여지는 스타일은 그녀만의 긍정적인 자신감과 함께 패션리더로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셸 오바마의 패션 감각은 우아함, 고급스러움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퍼스트레이디 스타일과 차별화 된 젊은 감각으로 자신감있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미국 패션 월간지 바니티 페어(Vanity Fair)가 주관하는 국제 베스트 드레스 리스트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플(People)지가 선정한 '옷을 가장 잘 입는 여성'과²⁾ '영향력 있는 하버드 졸업생 100인'에 선정되는³⁾ 등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퍼스트레이디로서 현 시대의 선두에서 패션아이콘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렇듯 그녀의 스타일은 그 영향력이 크며,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膾炙)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한지은⁴⁾의 패션 정치적 관점에서 본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와 몇 권의 단행본이 있을 뿐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인의 뽀뽀하고 심한 곱슬 모발에 아프로(Afro) 헤어를 연상했던 고정관념을 넘어 미국의 최초 흑인 퍼스트레이디로서 그 역할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을 길이 및 형태별로 분석해보고, 이 스타일이 역할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퍼스트레이디 기간의 시대적 패션 유행 경향

미셸 오바마가 퍼스트레이디가 된 2009년은 미국의 주택 채권 부실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자산 가격 폭락과 신용 경색, 개도국의 환율 및 외채위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시기였다⁵⁾. 이러한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의상(衣裳)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역시 트렌드(Trend) 테마로 '탈출'이 키워드로 부상(浮上)하였으며, 이는 불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에 희망의 메시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전 세계 헤어 트렌드를 제시하는 피벗 포인트(Pivot Point) 리포트에 따르면 2009년 유행 헤어스타일로 파격적이고 대담한 선과 비대칭 디자인으로 초현실주의를 연상시키는 스타일, 거친 질감과 가발을 착용한 것 같은 강한 볼륨감의 화려한 이미지를 제시한 바 있다⁶⁾. 또한 의상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기를 반영하듯 치마길이, 소매길이 등이 짧아졌고, 통이 좁은 바지와 혈렁한 풀오버(Pullover), 화려한 패턴이나 비비드(Vivid)한 원색계열의 밝고 튀는 컬러가 유행하였다.

2. 미셸 오바마의 성장배경 및 패션

1) 성장 배경

미셸 라본 로빈슨 오바마(Michelle Lavaughn Robinson Obama)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부인이다. 그녀는 지적인 외모와 화려한 경력, 뛰어난 능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돋보이는 패션 감각으로 대선 이전에는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의 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Jacqueline Kennedy Onassis)와 비교되어 '검은 재클린'이라 불리기도 하였다⁷⁾. 미셸 오바마는 1964년에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인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슨(Frasier Robinson)과 어머니 메리언 로빈슨(Marian Robinson)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기계

공인 아버지와 비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카고 남부 지역의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학교 성적도 탁월하여 한 학년을 월반하기도 하면서 시카고에서 가장 뛰어난 공립 고교로 알려진 휘트니 영 고등학교를 1981년에 졸업하였다. 이 후 미국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회학 전공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마치고,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원에 들어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⁸⁾. 그 후 그녀는 시카고의 로펌에서 하계 인턴사원으로 들어온 버락 오바마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1992년 결혼하였다⁹⁾. 미셸 오바마는 결혼 이후에 여성 법조인, 사회운동가, 시카고 시장의 자문관, 시카고 대학 부속 병원의 부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패션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만한 이력(履歷)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영리하고 치밀하게 기존 퍼스트레이디의 고정된 이미지 속에 자신을 맞춰 넣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그녀만의 스타일로서 전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패션에 미친 영향

미셸 오바마는 돋보이는 패션 감각으로 패션 잡지 보그(Vogue) 및 배니티 페어, 피플지 등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된 바 있다¹⁰⁾.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가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¹¹⁾ 2006년부터 4년째 1위를 차지했던 앙겔라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독일 총리를 밀어내고 오를 정도로 크다.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뉴스·인물 부문 책임자인 안나 마리아 윌슨(Anna Maria Wilson)은 미셸 오바마가 "미국 패션 산업의 활성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¹²⁾ 그녀의 패션 외교를 높이 평가했고, '마리끌레르(Marie Claire)'의 피쳐 에디터 출신 수잔 스위머(Susan Swimmer)는 그녀의 스타일과 정치적 성향 및 가치관 등을 분석한 책 「미셸 오바마 스타일」을 통해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고 패셔너블한 여성"이라고 평가했다¹³⁾.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패션에디터 로빈 지브한(Robin Givhan)은 ABC 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미셸 여사는 영부인처럼 옷을 입지 않는다. 그녀는 밀랍 인형처럼 보이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¹⁴⁾ 퍼스트레이디로서 전략적이고 지각있는 그녀의 패션 스타일을 우회해서 칭송(稱頌)했다. 또한 코트라(KOTRA)는 "미셸 오바마가 입는 옷마다 관련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여성들이 패션을 보는 시각과 의상 선택 기준을 바꾸는 '미셸 오바마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¹⁵⁾. 이러한 미셸 오바마 효과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 11월부터 1년 동안 27억 달러에 이르는 패션 경제 효과를 일으켜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FDA)에서는 그녀가 패션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2011년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¹⁶⁾. 그녀의 패션은 값 비싼 명품 보다는 제이크루(Jcrew), 갭(Gap)과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의 의상과 젊은 신예(新銳) 디자이너의 옷을 착용함으로써 대중들과 친숙한 이미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3) 전속 헤어디자이너

워싱턴포스트(WP)는 미셸 오바마의 전속 헤어디자이너로 흑인 남성 조니 라이트(Johnny Wright)를 낙점(落點)했다고 전했다¹⁷⁾. 그는 미셸 오바마가 버락 오바마와 함께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 당시부터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했고,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으로 입성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헤어디자이너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미용 실력과 친화력, 신뢰성을 인정받아 '퍼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First Hairstylist)'로 선정되었다¹⁸⁾. 조니 라이트는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을 퍼스트레이디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젊고 생기 있는 스타일로 변화를 주어 연출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스타일로는 재클린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앞머리에 부드러운 웨이브를 넣고 정수리에 볼륨을 준 '백조'형 헤어스타일과<그림 1>, 패션 잡지 보그에 표지 모델로 촬영 당시 어깨에 닿는 미디엄 컷 스타일(Medium cut style)로 지적인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예로 들 수 있다<그림 2>.



<그림 1> Michelle Obama vs Jacqueline Lee Bouvier Kennedy

-<http://www.segye.com/Articles>



<그림 2> On the March 2009 Cover of Vogue

-<http://www.edaily.co.kr/news>

III.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에서 미셸 오바마의 성장 배경 및 퍼스트레이디 기간 중에 연출된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Accessory) 등이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관련문헌, 선행연구, 관련기사에 근거하여 고찰하였고, 신문 및 주간지의 기사화 된 사진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길이 및 형태, 역할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미셸 오바마의 남편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2009년 1월 20일, 그녀가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국내외의 신문

및 주간지에 기사화 된 그녀의 사진을 2011년 6월 15일부터 최근 2012년 7월 20일까지 수집하였다. 미셸 오바마의 사진은 총 127점이 수집되었으며, 이중 중복되거나 스타일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을 제외하고 정면과 측면, 후면의 확인이 가능한 총 50점을 길이 및 형태에 따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길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분류는 김영미 외¹⁹⁾의 기준에 따라 숏 컷(Short cut, 짧은 머리), 미디엄 숏 컷(Medium short cut, 짧은 중간머리), 미디엄 컷(Medium cut, 중간 길이머리), 롱 컷(Long cut, 긴 머리)로 나누었다. 이 중 미셸 오바마의 스타일은 미디엄 숏 컷, 미디엄 컷으로 나눌 수 있으며, 퍼스트레이디 기간 중 많이 보여지는 묶거나 올린 헤어스타일은 업스타일(Up style)로 분류하여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 중 미디엄 숏 컷으로 분류한 스타일은 미셸 오바마의 흑인 모발이 묶이지 않는 짧은 머리를 하기 힘든 모질을 고려하여 사진 상의 정면과 측면의 모습에서 헤어디자이너가 미디엄 숏 컷 스타일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의도된 사진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 수행 과정을 크게 외교사절 참여와 자국행사 참여로 나누었고, 자국행사 참여는 미셸 오바마가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대중들을 만나는 공식석상 참여와 선거운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로 나누어 역할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헤어스타일의 길이 및 형태에 따른 분석

1) 미디엄 숏 컷 스타일(Medium short cut style)

김영미 외²⁰⁾에 따르면 미디엄 숏 컷은 짧은 중간머리로 그 길이가 귀를 덮는 정도나 어깨에 닿기 전까지의 길이로 정의하고 있다. 모발은 인체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수평적인 어깨와 대조되어 인체에

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그 길이는 인체의 비례 측정에 단위가 되기도 한다²¹⁾. 이러한 모발은 길이가 짧아지면 일반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과 기존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상징한다²²⁾. 그러나 미셸 오바마는 미디엄 숏 길이의 커트 스타일을 상황과 대상에 따라 강한 의지의 표현, 세련됨, 진취적 이미지 전달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3>은 그녀가 퍼스트레이디로서 추진하는 아동 비만 퇴치와 관련한 학교급식, 운동 개선 프로그램인 ‘다함께 움직이자(Let’s Move)’ 캠페인 연설에서 미디엄 숏 커트 스타일을 옆 가르마로 나누고 이마가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있다. <그림 4>는 미셸 오바마가 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파티에 세련되고 도시적인 숏 커트 스타일로 참석한 모습이다. 최근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²³⁾에 뽑힌 그녀는 앞머리를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린 비대칭형 미디엄 숏 커트 스타일에 검정색 민소매 원피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있는 진주목걸이를 레이어드하여 대담하고 현대적인 여성의 표본을 보여주었고 있다. <그림 5>는 남아공에서 열린 젊은 층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에서 미셸 오바마가 헤어스타일을 가운데 가르마로 나누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넣어 연출함으로써 변화와 행동력

의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해 여성 리더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이는 김정순²⁴⁾의 볼륨감 있는 숏 커트를 연출함으로써 액티브한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

2) 미디엄 커트 스타일(Medium cut style)

김영미 외²⁵⁾에 따르면 미디엄 커트는 중간 길이 머리로 모발 길이가 턱선에서부터 어깨에 닿는 길이로 정의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의 모발은 아프리카계 흑인의 심한 곱슬머리로 빗질이 힘들고 빗는 힘에 의해 부러지기 쉬워 스타일링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²⁶⁾. 그러나 미셸 오바마는 미디엄 커트 스타일 연출에 있어 매끄러운 질감을 최대화시킴으로써 지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해주었다²⁷⁾. <그림 6>은 미셸 오바마의 백악관 공식 초상화 사진으로 그녀를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 사진 속에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의 여성스러움과 짧은 머리의 전통적인 남성스러움²⁸⁾ 상황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어깨에 닿는 길이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로 그녀의 우아함과 지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헤어 컬러 역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컬러를 잘 살려 신비스러운 이미지와²⁹⁾ 함께 고급스러움의 완벽한 조화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녀가 착용한 블랙 드레스는 소매



<그림 3> Remarks at 'Lets Move'
-<http://www.google.com>



<그림 4> Opening Remarks at the TIME 100 Gala in New York
-<http://news.naver.com>



<그림 5> Keynote Address at Young African Women Leaders Forum
-<http://news.naver.com>

라인이 운동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커팅으로 검은 피부와 건강한 팔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밝고 자신감있는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그림 7>은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Evening of poetry and Music'의 행사에서 앞머리에 자연스러운 C컬을 넣어 이마를 가려주는 비대칭형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백악관에 안주인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세련된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그림 8>은 미셸 오바마가 미국 플로리다(Florida)주 파나마 시티 비치(Panama city Beach)에 있는 리조트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비치웨어를 연상시키는 편안한 차림의 의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비대칭형의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 스타일은 한쪽 방향으로 머리를 많이 넘겨 디자인을 연출하고 다른 한쪽은 최대한 볼륨을 줄여주는 최근 트렌드 동향을 반영한 스타일로서 그녀의 트렌드세터(Trendsetter) 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 6, 7, 8은 작은 단차를 보이는 그라주에이션형(Graduated form)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머리 길이와 시술 각도를 조절해 다양한 이미지로 적절히 연출하여 미셸 오바마의 모던하고 트렌디한 감각을 잘 보여주었다.

3) 업스타일(Up style)

업스타일은 긴 모발을 핀이나 끈 등을 이용하여 묶거나, 꼬거나, 땀는 방법으로 미적인 감각과 함목

적성에 조화를 이룬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긴 머리뿐만 아니라 짧은 머리 자체에 컬 형태나 피스 활용을 통한 스타일까지 매우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³⁰⁾. 이러한 업스타일이 과거에는 결혼식이나 각종 파티 및 시상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주로 활용되어졌으나³¹⁾,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히 연출되어진다. <그림 9>는 미셸 오바마가 중국 주석 후진타오(胡錦濤)의 방미 당시 만찬 자리에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붉은색 드레스와 업스타일로 예의를 갖추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 헤어스타일은 꼬기와 롤 기법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우아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골덴 포인트(Golden Point, G.P)에 거친 질감으로 스타일링하여 젊고 밝은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그림 10>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국민 만찬에서 미셸 오바마가 한인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인 한쪽 어깨 끈이 없는 대담한 스타일의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헤어스타일은 얼굴 라인에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정수리에 볼륨을 넣고 디자인 포인트를 네이프에 둔 스타일로서 소박하고 여성스러운 한국의 정서를 반영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1>은 할로윈데이(Halloween day)에 미셸 오바마가 고양이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캐주얼한 의상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



<그림 6> Official White House Portrait
-<http://www.google.com>



<그림 7> 'Evening of Poetry and Music' at the White House
-<http://www.google.com>



<그림 8> A Roundtable Discussion at the Panama City Beach
-<http://www.google.com>

스타일은 볼륨을 최대한 없애고 골덴 포인트에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틀어서 젊고 유연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미셸 오바마는 업스타일을 포인트 위치에 따른 이미지 변화와 질감이 주는 느낌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헤어스타일링 하였다.

2.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1) 외교사절 참여 당시의 헤어스타일 분석

권현아³²⁾의 보고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들이 대외적인 공식석상에서는 과장되고 장식적인 헤어스타일 보다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역할에 어울리도록 각자의 이미지를 관리한다고 하였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도 퍼스트레이디로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헤어스타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녀의 곱슬머리를 직모로 펴서 잘랑거리는 모발 표현으로 순수한 이미지를 연출하였고³³⁾, 자연스러운 볼륨이나 앞머리로 이마를 반 정도 가려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미디엄 커트 스타일을 반 묶음하여 여성스럽게 연출함으로써 대통령 내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2>는 영국 G20 세계금융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엘리

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한 모습이다. 어깨에 닿는 길이의 헤어스타일에 앞머리를 높게 살려 빗질하고 반 묶음 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3>은 인도 방문 일정 기간에 인도 총리 부부와 함께한 모습으로 타이완 '공상시보(工商時報)'의 보도에 따르면 "방문 일정 중에 미셸 오바마는 패션 외교로 호평을 얻으며 많은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³⁴⁾. 동양적인 분위기의 회색 양장과 턱선까지 오는 길이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에 앞머리로 이마를 반쯤 가리고 한쪽을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기는 비대칭형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그림 14>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열린 각국 정상들의 저녁 만찬에 참석할 당시 미셸 오바마의 모습으로 상체의 피트감이 좋고 물결 같은 주름이 잡힌 러플드 스커트와 어깨에 닿는 길이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에 곱슬머리의 거친 질감을 완벽하게 제거한 매끄러운 질감의 헤어스타일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2) 자국행사 참여 당시의 헤어스타일 분석

(1) 정치적 동반자로서 공식석상 참여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정치적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이다. 단순히



<그림 9> The State Dinner for Chinese President Hu Jintao
-<http://hljxinwen.dbw.cn>



<그림 10> The State Dinner fo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ttp://radiokorea.com/images>



<그림 11> At Halloween Party
-<http://www.google.com>



<그림 12> The Official Dinner at the G20 London Summit
 -<http://blog.naver.com>



<그림 13>The State Dinner in India
 -<http://www.google.com>



<그림 14> The State Dinner in Strasbourg, France
 -<http://cryptome.org/info/obama>

대통령의 공식행사에 동행하거나 일부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국가인력 낭비이다³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셸 오바마는 항상 당당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으로 버락 오바마의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수희 외³⁶⁾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석상에서 영부인들의 헤어스타일은 공통적으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게 모두 올려 빗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도 앞의 보고와 같이 정치적 동반자로서 공식석상에 참여하는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당일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다. 이 날 미셸 오바마의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대상이었다. 그 기대에 부흥이라도 하듯 의상은 레몬그라스(Lemongrass) 컬러의 쓰리피스 정장으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과 변화를 표현해주었고 헤어스타일은 어깨에 닿을 듯한 길이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에 앞머리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넣어 이마를 드러냄으로써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16>은 주지사 초청 공식 만찬에 버락 오바마와 함께 참석한 미셸 오바마의 모습이다. 모던한 미디엄 숏 커트 형태의 헤어스타일과 어깨끈이 없는 스트랩리스 드레스(Strapless dress), 화려한 진주목

걸이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앞머리에 넣은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탑에 볼륨은 짧은 길이에서 느껴지는 강한 이미지를 당당한 자신감으로 유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미셸 오바마가 정치적 동반자로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5> Barack Obama's Inauguration
 -<http://www.nocutnews.co.kr>

(2) 선거운동 참여

권현아³⁷⁾의 보고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들은 대체로 짧은 머리에 컬이 진 형태를 연출하여 활동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보여지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림 16> Governors Dinner at the White House
-<http://www.google.com>

그러나 선거운동 참여 당시 미셸 오바마의 경우에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패션, 어두운 컬러의 미디엄 숏 컷트 형태의 헤어스타일, 상황에 맞는 대담한 액세서리로 기존 퍼스트레이디들과 차별화 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어두운 컬러의 짧은 머리를 모발 끝은 가볍게 처리하여 소품을 사용하지 않고 매니쉬(Mannish)한 감각으로 연출해³⁹⁾ 선거 지원 유세에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림 17>은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린 집회에서 해리 리드(Harry Reid)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는 모습이다. 건강한 팔이 많이 드러나는 모노톤의 원피스를 입고 거칠게 빗어 넘긴듯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여 시원스럽게 이마를 드러내고 있다. 액세서리의 착용도 최소화하여 그녀의 연설에 집중되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8>은 선거운동 기금마련을 위해 참석한 모습으로서 <그림 17>과 이마를 드러낸 미디엄 숏 컷트 스타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상 형태를 따라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볼륨을 넣어 선거 지원 유세 때와 비교하여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3) 사회활동 참여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퍼스트레이디들의 모범은 여성 리더십의 모델이 되었고, 여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그녀들의 사회



<그림 17> Stumping for Senate Democratic Party Leader -<http://www.ilyo.co.kr>



<그림 18> At a Democratic Party Fundraiser
-<http://www.google.com>

활동은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아동, 환경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³⁹⁾. 미셸 오바마는 이러한 사회활동 참여 시에 그녀를 가장 그녀답게 보여주는 대담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그림 19>와 같은 토크쇼에서는 지적인 모습의 미디엄 컷트 스타일을 연출하였고,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의 공로를 기리는 축하 행사에서는 굵은 웨이브를 넣은 헤어스타일로 감각적이고 사교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그림 20>. 또한 <그림 21>은 군인 가족을 만나는 자리로서 그 대상을 고려하여 귀를 살짝 덮는 미디엄 숏 컷트 스타일로 밝고 행동력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미셸 오바마는 사회활동 참여 당시 기존의 퍼스트레이디들의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던 틀에서 벗어나 시간,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ion,



<그림 19> Today Show
-<http://postfiles9.naver.net>



<그림 20> At the White House in Honor of Musician Stevie Wonder
-<http://postfiles15.naver.net>



<그림 21> At WGA Theater in Beverly Hills
-<http://www.newshankuk.com>

T, P, O)에 맞는 감각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

V. 결론

퍼스트레이디를 통해 보여지는 스타일이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움직이고 국가의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 예로 재클린 케네디와 다이애나 스펜서(Diana Spencer)를 들 수 있으며, 미셸 오바마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한 외모에서 오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성과 당당한 자신감이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을 길이 및 형태별로 정리해 보면, 미디엄 숏 커트 스타일은 깔끔하게 이마를 보이는 스타일로 강한 의지의 표현을, 앞머리로 자연스럽게 이마를 가리는 비대칭형 스타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가운데 가르마를 나누고 볼륨을 넣어 진취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어깨에 닿는 길이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은 우아함과 지적인 이미지를, 매끄러운 질감의 비대칭형 스타일로 트렌디한 세련됨을, 거친 질감과 귀를 살짝 덮는 그레쥬이션 형으로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업스타일은 꼬기, 롤 기법을 이용하여 젊은 감각을,

네이프에 포인트를 잡고 디자인하여 여성스러움을, 볼륨을 최대한 없애고 골덴포인트에 묶기와 틀기를 이용하여 캐주얼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역할에 따른 헤어스타일은 먼저 외교사절로 참여 시에는 전체적으로 볼륨을 넣고 앞머리로 이마를 반 정도 가리는 스타일, 어깨에 닿는 길이를 반 묶음하는 스타일을 연출해 독립적으로 강한 이미지보다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대통령 내조자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국행사 참여 시에도 역할에 맞게 헤어스타일이 연출되었는데, 먼저 정치적 동반자로서 공식석상에 참여 시에는 앞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 이마를 보이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둘째, 선거운동 참여 시에는 앞머리를 뒤로 올려 빗어 이마를 깔끔하게 드러내는 미디엄 숏 커트 스타일로 거친 질감과 매끄러운 질감을 적절히 연출해 그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 활동 참여 시에는 T, P, O를 고려하여 토크쇼에는 지적인 이미지의 미디엄 커트 스타일을, 축하 행사에는 화려한 느낌의 웨이브를, 군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귀를 살짝 덮는 미디엄 숏 커트 스타일로 밝고 행동력 있는 이미지를 연출해 대담하고 감각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미셸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로서 그녀의 모질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헤어스타일을 역할에 맞게 전략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정면, 측면, 후면의 확인이 가능한 사진만을 선택하여 미셸 오바마의 헤어스타일, 컬러, 질감 등을 분석하였으나 사진을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로열 패밀리(Royal Family)들의 헤어스타일을 직접 보고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의 미셸 오바마의 의상에 관련한 연구에서 폭을 넓혀 한 나라를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함에 있어 단순히 스타일별 분석이라는 단선적 접근이 아닌 역할에 따른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퍼스트레이디의 스타일 형성에 정점이 되는 헤어스타일을 국내의 경우와 비교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전현진, 정명선(2011),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와 헤어관여도가 헤어스타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7(6), pp.1150-1162.
- 정경숙, 서경현(2009), “여대생의 헤어미용에 대한 태도와 웰빙 변인 간의 관련성”, *한국미용학회지*, 15(2), pp.534-543.
- 2) “미셸 오바마, 2년 연속 베스트드레서… 피플 선정”, (2010. 03. 30), 헤럴드 경제 자료검색일 2012. 03. 12, 자료출처 <http://news.heraldm.com/view>
- 3) “조력자서 동반자로 ‘신 내조의 여왕’”, (2009. 09. 09), 서울경제 자료검색일 2012. 03. 15, 자료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
- 4) 한지은(2011),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pp.89-102.
- 5) “2009년 세계경제 전망”, (2008. 12. 29), LG Business insight 1021호.
- 6) “트렌디한 쇼트 스타일을 위한 style advice”, Hair GRAPHY 4월호, p.164.
- 7) “입이면 ‘뜨고’…만들면 ‘트렌드’”, (2010. 06. 01), 메트로신문 자료검색일 2012. 04. 21, 자료출처 <http://alpha.metroseoul.co.kr/Metro>
- 8) 정영순(2009), *미셸 오바마처럼 사랑하고 성공하라*, 가림출판사, p.10.
- 9) 리자 먼디(2009), *미셸 오바마, 당대한 꿈*, 안진이(역), 청림출판, p.17.
- 10) 박관규, “미셸 오바마 베스트 드레서에 피플지 선정 10명에 포함”, (2008. 09. 19),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11. 08. 17,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
- 11) 윤지로, “미셸 오바마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2010. 10. 07),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2. 03. 21, 자료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
- 12) 정옥주, “미셸 오바마, ‘G20에서 패션 외교’ 관심 집중”, (2009. 04. 02), 뉴시스 자료검색일 2011. 09. 0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3) 수잔 스위머(2009), *미셸 오바마 스타일*, 최유나(역), 장서가, p.122.
- 14) “백악관 입성 1년 맞은 미셸 오바마”, (2010. 01. 21),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2. 03. 1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5) 이새봄, “경제적 파급효과 연3조원 ‘미셸 오바마 효과’”, (2010. 11. 16),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2. 02. 12, 자료출처 <http://news.mk.co.kr>
- 16) “미셸, 美패션디자이너협 특별공로상 수상”, (2012. 02. 02),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12. 03. 12,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news>
- 17) “미셸 오바마 헤어스타일, 31세 남성이 전담”, (2009. 03. 26), LA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1. 08. 13, 자료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
- 18) 박종률, “미셸 오바마의 전속 미용사는 31세 흑인남성”, (2009. 03. 27), 노컷뉴스 자료검색일 2011. 12. 18, 자료출처 <http://www.nocutnews.co.kr>

- 19) 김영미 외(2009), *C-3 베이직컷*, 청구문화사, pp.40-41.
- 20) Ibid., p.40.
- 21) 김민자(2004), *복식미학 강의2*, 교문사, p.24.
- 22) 권기영(2004),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8(8), pp. 1100-1111.
- 23) “타임(Time)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 (2009. 05. 18), 유코피아 뉴스 자료검색일 2012. 07. 18, 자료출처 <http://www.ukopia.com/ukoCorner>
- 24) 김정순(2002), “여대생들의 Hair Style 행동에 따른 이미지별 선호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 25) 김영미, op.cit., p.40.
- 26) 이귀영, 장병수(2008), “인종 모발의 형태학적 차이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연구”,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38(3), pp.265-273.
- 27) 하경연(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0.
- 28) 권기영, op.cit., pp.1100-1111.
- 29) 박길순(2000), *재미있는 패션의 세계*,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pp.235-236.
- 30) 김진숙 · 조판래(2006), *UP STYLE DESIGN*, 청구문화사, p.11.
- 31) 한성진(2010), “현대 퓨전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 32) 권현아(2003),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9.
- 33) 김춘일 외(2001), *Permanent wave design*, 교문사, p.20.
- 34) “미셸 오바마 인도행, 패션 외교 호평”, (2010. 11. 11), 중국망신문중심 자료검색일 2012. 02. 15, 자료출처 <http://china.naeil.com/news/news>
- 35) 이민정(2008),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0.
- 36) 이수희, 조진아, 나해윤(2005),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헤어스타일 분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9(2), pp.100-112.
- 37) 권현아, op.cit., p.155.
- 38) 안현경(2004), “패션 감각별 헤어스타일 이미지 메이킹 차트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4), pp.141-155.
- 39) 권현아, op.cit., pp.6-7.

접수일(2012년 5월 30일),
수정일(1차 : 2012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2012년 7월 11일)